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경제적 영향과 우리의 대응

김수동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TRANS-PACIFIC PARTNERSHIP



1. TPP 타결의 의의

세계 무역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FTA가 강조되기 시작한 이래로 최근에는 TPP와 같은 복수국 간 메가 FTA가 세계통상질서를 선도하고 있다. TPP, RCEP, 한중일 FTA 등과 같은 Mega FTA가 경쟁적으로 추진되면서 세계 경제통합은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작년 10월 5일 TPP 12개 회원국이 미국 애틀랜타에서 협상 개시 5년 만에 최종 협상타결을 달성하며, 전 세계 GDP의 38%를 아우르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성공하였다.

TPP 12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을 모두 합치면 전세계 GDP의 38%에 달하는데 이는 EU 전체(23%)보다 훨씬 큰 규모다. 그리고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4%,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28%로 전세계 무역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TPP 협상 타결에 따라 12개 국가들 사이에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 그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지난 5년간의 협상을 통해 최종 합의에 도달한 TPP 협상 결과는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02. TPP의 경제적 효과

협정이 발효되어 관세장벽이 허물어지면 역내국가간 수출과 수입이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무역규모가 증가할 것이다. 게다가 TPP 회원국 사이에 무역이 활성화되면 원산지 누적 조항에 따라 중간재 무역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비관세장벽이 완화되면 기술 및 투자의 무역장벽이 낮아져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가시적인 경제효과 외에도 TPP 참여를 통해 새로운 국제무역 질서에 동참하고 무역관련 규범을 만드는데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TPP 협상은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12개 국가간의 협정이다. 그중에 일본은 FTA를 통한 글로벌 경제통합 흐름에서 우리나라보다 한참 뒤쳐져 있었다. 그런데 TPP 협상이 타결되면서 일본은 단순히 세계 경제의 38%를 차지하는 경제권에서 우리나라와 동일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일본이 TPP 경제권에서 관세 혜택을 받게 되면 우리가 누리던 FTA 선점 효과는 조만간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자동차(부품포함), 전기전자, 기계 등 일본과 경합하는 우리나라 산업 분야는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본이 참여하고 있는 TPP에 조속히 가입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TPP 조기 가입의 논리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TPP 가입의 경제적 효과를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TPP 회원국과 이미 개별 FTA를 타결하여 발효한 상태이다.

다시 말해서 TPP의 상품양허 수준이 개별 FTA의 양허 결과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면 관세효과에서는 기대할 것이 많지 않다. 그런데 TPP 협상에서 눈여겨 볼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누적 원산지 규정이다.

쉽게 풀어 말하면 베트남에서 원재료를 조달하여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한 후 미국에 수출하면 모두 역내산 거래로 취급하여 무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이는 개별 FTA의 단점 중 하나로 거론되는 나라별로 다른 원산지 규정 때문에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TPP 가입을 전제로 누적원산지 적용을 받게 된다면 중간재 교역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상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산업별 이해득실을 살펴보자. 먼저 자동차와 부품업종은 TPP 협상 타결로 미국시장 등에서 일본과 한층 강도 높은 경쟁이 예상된다. 일본산 부품에 대한 미국의 2.5% 관세가 철폐되면 일본산 부품의 가격경쟁력은 상승하고 이는 우리 기업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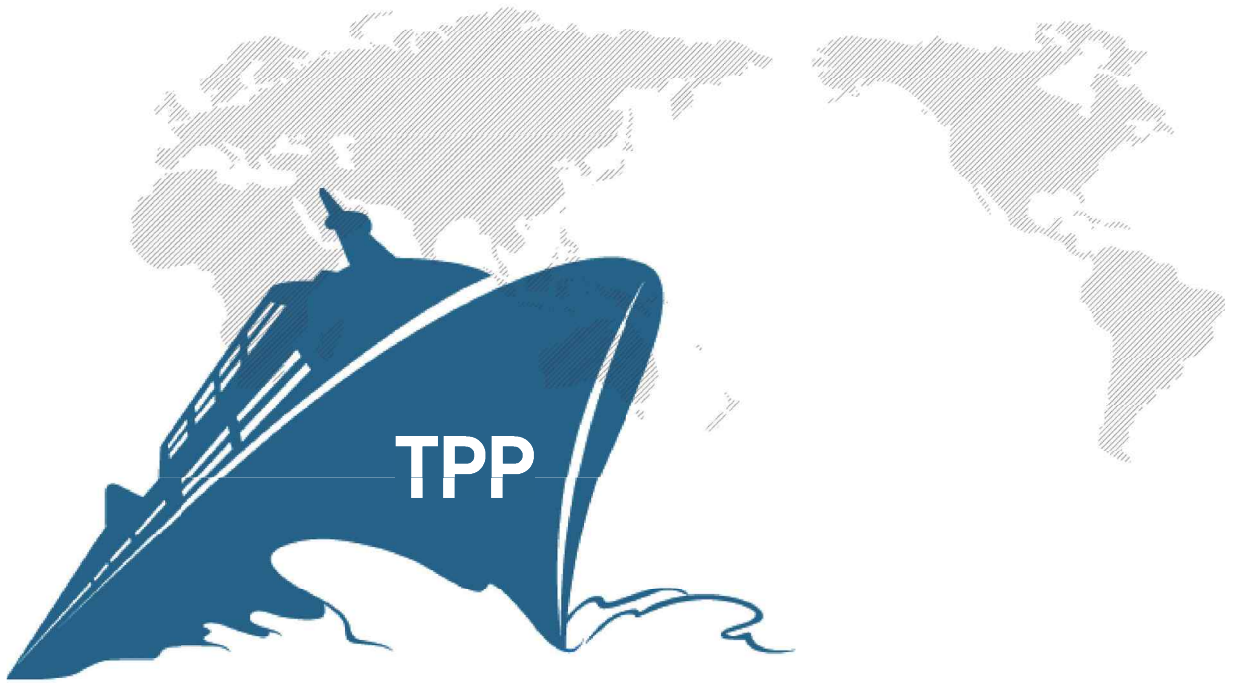
그러나 완성차는 사정이 좀 나은 편이다. 왜냐하면 한-미 FTA로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가 올해부터 완전히 철폐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완성차 업체들이 이미 미국 현지 생산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물량이 과거만큼 크지 않다.

전자업종의 경우 일본산 냉장고, 텔레비전, 가전제품에 부과하던 관세가 사라질 경우 그만큼 일본 전자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게 된다. 이는 한국 전자제품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 주력 수출 품목은 정보기술협정(ITA)에 의해 이미 무관세이기 때문에 TPP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

섬유업종의 경우 미국과 일본 등 TPP 역내 국가는 역외 국가인 중국보다 베트남으로부터 의류 수입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 베트남은 전체 의류 수출의 46.7%(89억 달러)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고 일본(3위 수출국)에는 24억 달러를 수출하고 있다.

2014년 베트남의 10대 의류 수출기업 중 7개사가 외국인 투자기업이며, 이중 4개사가 우리나라 진출기업이다. 우리나라는 베트남 섬유·의류산업에 진출한 대표적인 투자국이며 500여 개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다. TPP를 통한 베트남의 섬유산업 성장은 현지 우리 의류생산 업체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베트남은 대부분의 섬유 원료를 중국과 한국 등의 국가에서 조달하고 있다. 우리 의류 관련 기업들이 이런 점을 적극 활용한다면 혜택은 배가 될 것이다. 석유화학제품의 경우는 수출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TPP 협상 참여국도 아니다.



03. 우리의 대응방안

TPP가 발효되기 전까지 향후 2~3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다. 미국과 일본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TPP는 현재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의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수단이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TPP가 미국의 대중국 견제 수단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우리에게서는 사실상 한일 FTA가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일본 입장에서 TPP는 그동안 우리나라에 뒤쳐져 있던 FTA 진척도를 단번에 만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TPP에 불참하게 된다면 미국 등 거대시장에서 누렸던 선점효과는 곧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미일 주도의 새로운 통상질서 흐름에서 한 걸음 뒤처지게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TPP 협상의 세부내용이 확정되고 각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될 때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다. 협정문의 내용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아울러 가입 또는 불참시 실익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입 또는 불참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TPP 발효는 시점의 문제이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부와 경제 주체들은 눈앞으로 다가온 TPP 발효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와 대응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